

행복한 책임기

박현모의 '정조 사후 63년' <창비 펴>

조선은 신라, 고려와 마찬가지로 매우 수명이 길었던 왕조다. 그 수명은 중국, 일본, 영국 등 다른 왕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만 보더라도 한 왕조의 수명의 길어봐야 '청'의 경우 267년이었으며 '수'의 경우는 39년이 고작이었는데 조선은 500여 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렇게 수명이 긴 왕조는 600여년이나 지속해 세계를 지배했던 오스만투르크 왕조를 제외하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보통 왕조는 백 년 이상이 되면 보수적으로 변하며 침체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또 그녀는 "어떤 체제도 수명이 있다. 어떤 체제도 동맥경화증을 피할 수 없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던 것이 환경변화 때문에 부정적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와 정조였다. 이 가운데서도 정조는 집권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대사관, 대사헌, 홍문관 등의 견제장치를 혁파하고 왕의 통치력이 미칠 수 있는 대신권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국가개혁과 탐정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나 국정운영을 위임받은 외척의 세도정치가 도래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정조 사후 63년'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공백기를 가져온 시기였다.

사실 '국왕의 지우를 받은 세도'에 의해 자행되는 권력농단이라는 뜻의 세도정치는 정조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사실 조선왕조



공론은 사라지고 세도정치가 왔다

그러나 제임스 팔레는 "임진왜란이 없었더라면 조선왕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역설적인 주장을 했다. 그만큼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의 조선 왕조는 어느 편이냐에 따라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뉘는 봉당정치가 판을 쳤다. 선조임금에게 봉당을 예언했던 이준경이 상소에서 "봉당을 꺾어버리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이는 봉당의 기원과 관련해서 봉당의 불가피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런 봉당이 국왕의 전제나 외척, 권신의 전횡을 방지하는 역할을 외면하고 분열을 일삼는 것은 부정적 기능에 해당할 것이다.

봉당의 반대되는 개념은 탕평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탕평론자는 숙종 때의 박세채였으나 적극적으로 탕평 정책을 추진한 국왕은 영조

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었던 힘은 정치세력 간 견제장치와 반정의 정권교체방식, 사대교린이라는 외교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 간 견제장치가 약화됨으로써 조선 왕조는 쇠퇴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하여 이 책의 말미에서는, 이런 시대에서 어린 임금의 보필에만 그치는 '선왕의 당부'나 '성학의 공부'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상의 태도라 할 수 없지 않다고 묻고 있다.

저자는 또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때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세도정치의 주요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정치 리더십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배'에는 '국가'라는 배도 있고 '가장'이라는 배도 있다. <정조 사후 63년>은 배가 항로를 잃고 난파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영암 미암중·장성 신흥중 전교생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관람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도 '최고의 공연' 경험합니다

학교장 과감한 결단... "설레고 기대돼요"

작은 시골 마을에도 문화의 향기가 퍼져 나간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공연을 만나고,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영암군 미암면 미암중 학생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다. 7월이 되면 난생 처음 발레 공연을 보기 때문이다. 지난 1976년 문을 연 미암중은 전교생이 27명에 불과한 미니 학교. 전교생 27명과 교사 등 40여명은 오는 7월 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국립발레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를 관

람한다.

미암중은 지난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돌봄학교'로 선정돼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해왔다. 올해는 여수 해양엑스포에 다녀왔고, 순천 낙안읍성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감상하기도 했던 미암중 학생들은 "좀 더 수준높은 문화 체험을 진행한다"는 학교 방침으로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국립발레단의 공연을 선택했다.

미암중 고교진 교장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며 "특히 이번에 관람하는 '백조의 호수'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발레 공연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문화에서 소외됐던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가동되면서 쉽게 고품격 공연과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공연·전시 관람 등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교들이 눈에 띈다.

장성 신흥중(교장 강경아) 전교생 24명은 지난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내 마음의 품'을 관람했다. TV 시청이나 영화 관람이 문화생활의 전부였던 아이들에게 화려한 무대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뮤지컬 공연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을 본 학교측은 올해는 '백조의 호수'를 관람 목록에 포함시켰다. 가장 좋은 자리인 VIP석에서 멋진 공연을 관람할 기대에 부풀어 이혜림(신흥중 3년)양은 "책으로 읽었던 '백조의 호수'를 감상하는데 어떻게

발레로 표현될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복지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나 문화바우처 사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문화바우처 예산은 시비 3억원에 포함해 모두 12억 9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시비 5억 6000만원을 포함 20억 3900만원으로 대폭늘었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뮤지컬 '셜록홈즈', 김범수 콘서트, 발레 '백조의 호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안겨주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소나무' 여름호 '광주, 왜 예향인가' 특집

세광주원로예술인들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소나무' 여름호가 나왔다.

'광주, 왜 예향인가'라는 주제로 지역 문화·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특집 기사로 다뤘다.

송인동 호남신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신남수 전남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조동수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최중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예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두칼럼으로는 김양근 한국미술협회 고문의 '예향의 의인'이라는 글을 실었고 지난 4월에 열린 광주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토론회 내용도 상세히 다뤘다.

'타오르는 강'을 완간한 소설가 문순태씨와의 인터뷰를 '창작의 열정' 코너에서 다뤘고 강봉규씨와 황영성, 우재길, 장찬홍, 정영옥, 고정희씨의 전시 소식을 담았다.

'살아숨쉬는 근대미술관 II'코너에서는 오지호 일가의 작가 정신을 주제로 풀어냈다.

문의 062-228-3456.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거리의 청소년들, 사진으로 소통하기

신희수 개인전, 내달 10일까지 신세계 갤러리

길가다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칠 듯한 청소년들의 사진이 영글에 고스란히 담겼다.

팔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불쌍하게 가득해보이는 청소년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파트 뒷 편에서 교복을 입고 걸렁함을 과시하려는 듯 한껏 폼을 차는 학생들 수십 명도 사진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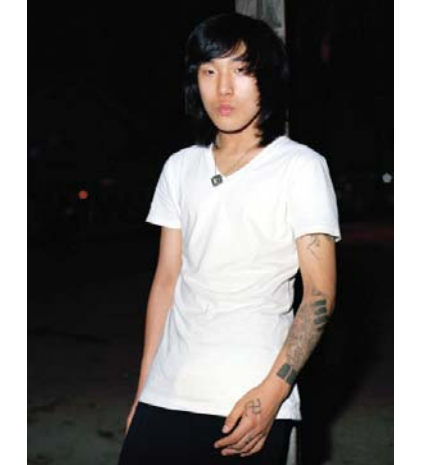
사진작가 신희수씨가 다음달 1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여는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는 광주신세계미술제(2010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희

수 개인전, 내달 10일까지 신세계 갤러리

초대전으로, '새만금사람들'과 청소년들을 촬영한 '노상간다' 시리즈, 지난 2년여간 일본에서 촬영한 '신주쿠 2 초메' 시리즈 등 30여 점의 선을 보인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의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체를 넓게 소개하고 바라보자는 작가의 의도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길거리를 떠돌며 소위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아이들과 소통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 온 작가의 노력이 묻어나는 작품들이다.



'강북구 수유리'

신희는 광주대 사진학과를 거쳐 일본 도쿄공예예술대학교 사진학과 대학원 연구생 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사진비평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163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2. 6. 11(월) - 6. 29(금)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명	학과	필기고사	면접고사
일반대학원	신학연구과(M.A.T.)	-	2012. 7. 5(목) 오전 10:0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	2012. 7. 5(목) 오전 10:00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2012. 7. 5(목) 오전 10:00	필기고사 후
교육대학원	교육학과(M.Ed.)	-	2012. 7. 5(목) 오전 10:00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M.S.W.)	-	2012. 7. 5(목)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2. 7. 9(월) 오전 10:00 ④ 등록기간 : 2012. 7. 9(월) - 11(수)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정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1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	7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13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유아특수초등특수상담	12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
합계				35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8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3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